

##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추진...국제보훈 역할 강화

### 국가보훈처 업무계획 발표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개선  
올해 임정기념관 완공 개관

“창설 60년 맞아 질적 도약,  
성과 체감 원년 만들겠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해 공적 미비 등으로 포상이 보류된 역술한 사례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 올해 광복절 포상 심사부터 적용기로 했다.

또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7급 상이유공자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던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주제로 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상세 업무계획 4·5면〉

보훈처는 이와 함께 이제까지 국가유공자 등록에 평균 283일이 소요되던 것을 내년까지 210일로 대폭 단축해 필요한 시기에 보훈급여금과 취업·교육·대부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전자심의제 확대와 함께 현재 중앙보훈병원과 부산보훈병원에서만 운영 중인 신체검사 전담의를 단계적으로 5개 보훈병원으로 확대해



상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중 민간의료기관 100개소를 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 부담하게 되는 약제비를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했다.

보훈처는 또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공원 인근에 건립 중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1945년 백범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의 한국일인 11월 23일에 맞춰 개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예산을 지원해 추진해 온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의 ‘추모의 벽’을 내년까지 건립하고 김구,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등의 묘소가 있는 서울 용산 효창공원을 서울시와 공동

으로 2025년까지 독립기념공간으로 조성기로 했다.

국제사회에서 보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22개 유엔참전국 마스크 지원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데 이어 유엔참전국 보훈부장을 초청하는 ‘국제평화 컨퍼런스’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특히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그간 호국·독립·호국·민주 유공자 등 35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올해부터 전몰·순직군경 유족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진 인물을 발굴하여 널리 알릴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 등 고령화로 인한 안장수요 급증에 대비해 안장 여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4월 국립대전현충

원 봉안당 개원을 시작으로 12월 국립제주호국원 개원, 국립연천현충원(2025년까지) 조성 및 이천·괴산·임실·영천·4·19 등 이미 조성된 국립묘지의 안장 확충을 통해 안장능력을 2025년까지 26만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사망 시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보훈처 창설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이 질적으로 도약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2월분 보훈급여금 조기지급 안내

오는 12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들께서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2월분 보훈급여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을 정지급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9일(화)부터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설을 맞아 모든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 설 명절, ‘온라인 참배 서비스’ 이용하세요

#### 헌화 차례상 서비스 등 제공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이번 설 연휴기간 국립묘지는 ‘온라인 참배 서비스’로 대체 운영된다.

국가보훈처는 설 명절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참배객 안전을 위해 설 연휴기간 중 국립묘지(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출입을 통제하고, 제례

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과 셔틀버스 운행도 일시 중단기로 했다.

다만 야외묘역 현장 참배의 경우 안장자의 기일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국립묘지는 기존의 사이버 추모관 외에 헌화·참배사진 전송서비스와 온라인 차례상 등을 통해

보훈가족의 참배를 지원기로 했다.

헌화·참배사진 전송서비스는 1일부터 10일까지 예약을 받아 국립묘지의 전단이 묘역 또는 유골함 앞에서 헌화하고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유가족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오는 8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온라인 차례상’은 국립묘지별 홈페이지를 통해 안장자를 찾은 후, 차례상을 선택하면 실사(實瀉)를 통해 입체적으로 구성된 차례상을 구현해 온라인에서 차례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